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Fax: 949.854.4018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본당 2층 영아부실, 온라인
9:00AM & 11:00AM
- 유치부(4-5세) / 유치부실(구식당), 온라인
9:00AM & 11:00AM
- 유년부(1-3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 11:00AM
- 초등부(4-6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온라인
11:00AM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온라인
9:00AM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현장예배, 온라인
11:00 AM
- 日本語 礼拝 / 현장예배, 온라인
1:00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us.cts.tv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히브리서 13:18-19, 22-25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6:11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히브리서 강해(50) 마지막 기도부탁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주기도문2- 주식이 아니라 양식(Not stock, but supper)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기도 할 수 있는데, 은혜 아니면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이민 교회의 장래

Future of Immigrant Churches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민 교회의 장래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2, 30년 후의 이민 교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이민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다음 세대의 교회도 한인교회로 존재할까요?" "이민이 끝나면 이민 교회도 끝날까요?"

저는 이민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언어와 문화적인 문제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쌍둥이조차도 세대 차이가 있다는데,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소통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어나 문화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 철학과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동역의 원칙은 사역 철학과 목표의 공유입니다. 범교회적으로 사역할 때에도 이 원칙은 고수되어야 하며, 한 교회를 같이 섬길 때는 더욱 필수 불가결한 원칙입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쓰던 동역자들을 "나와 멍에를 같이한" 자들(빌 4:3) 이라고 했습니다. 소 두 마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은 힘을 쓰기 위해서 멍에는 것이 멍에입니다. 멍에가 바로 목회 철학이고,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민 교회의 장래는 바른 목회 철학과 목표를 가진 인격 있는 목회자 양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남준 목사가 목회자 후보생을 위해 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에서 한 신학교에서 데모하며 외치는 구호를 보았다고 합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 과목으로!" "과락 많이 시키는 헬라어 교수, 물러가라! 물러가라!" 김목사는 "성경을 털도 안 뽑고 먹으려는 도둑놈들이 신학교에 들어왔구나!"라고 슬퍼하면서 불교의 팔만대장경도 7년 정도 한 자를 공부해야 읽을 수 있는데, 성경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은 목회 전문가 되기를 포기한 '미친' 신학생과 같다고 말합니다. 회교도들도 어려서부터 코란을 읽기 위해 모국어 외 아랍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성경 전문가가 되어야 할 목회자로서 이교도들의 이런 열심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더욱 바른 목회자를 키워내야 이민 교회의 앞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어 공부를 해야 소망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충실히 책임을 다하는 바른 태도의 목회자를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바른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왜 제일 먼저 학교를 세웠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일꾼들을 키워내는 것이 2, 30년 후에도 이민 교회의 역동성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세월을 뒤돌아보며, 이제부터는 한 사람의 바른 목회자를 키워내는 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애써볼까 합니다.

One of 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lately is in regard to the future of immigrant churches. "How will immigrant churches change in the next 20, 30 years?"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urgent issues of immigrant churches?" "Will our next generations of churches still exist, as Korean churches?" "Will the end of immigration be the end of immigrant churches?"

Personally, I think the issues of immigrant churches are no different than the issues of churches in Korea. You could say that there may be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However, just speaking the same language does not solve issues of communication. Even twins have generational gap. Rather than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confirming philosophy of Christ-centered ministry and goals are more important. Principle of working together is sharing philosophy and goals of ministry. This principle must be adhered to when doing ministry across the board. It is absolutely necessary when serving in a church together. Apostle Paul referred to his co-workers for the gospel as those "who have labored side by side with me" (Phil 4:3). Two cows are yoked together in order to put their strengths together in one direction. This yoke is the philosophy and goals of ministry. I don't think it would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future of immigrant churches hangs on pastoral training of those with upright character who have correct philosophy and goals of ministry.

Pastor Nam Joon Kim wrote a book for pastoral candidates called [Are you sure you really want to go that route]. He wrote in the book that he saw demonstration signs at a seminary. "Greek and Hebrew should be elective courses! Elective courses!" "Hebrew professors that fail us must be removed! Removed!" Pastor Kim was saddened "These thieves came to seminary wanting to gobble up the whole Bible but don't want to do the work". Even the book of Buddhism (Palmandaejanggyeo) requires about 7 years of studying Chinese characters before they are able to read it. Giving up on Bible's original languages, Hebrew and Greek, means that those are 'crazy' seminarians who don't want to become ministry experts. Muslims learn Arab, their mother language, at an early age in order to read Koran. This kind of practice should put pastors, who should be Bible experts, to shame. I think we need to raise clear-minded and upright pastors in order for immigrant churches to have a future. I am not saying that there's only hope if we study the original language, but we must raise pastors with the right attitude who faithfully take on the responsibilities of what they are called to do. There is hope for a church to stand upright only if there is one upright pastor.

I think I understand why the first missionaries who came to Korea built schools. I believe raising and growing workers with the conviction that "Even to the empty fields and valleys, I will bring the gospel" will determine the vibrancy of immigrant churches 2, 30 years down the road. As I look back on how God has used me, despite my inadequacies, I am determined to do the concrete work of raising one upright pastor from now on.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히브리서 강해

주일설교시리즈

제 50 편

마지막 기도부탁

(히 13:18-19, 22-25)

1.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의 세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만나고 싶었던 가족과 믿음의 식구들과 격려의 인사를 나눕시다.

2. 히브리서 설교자도 성도들을 대면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보고 싶은 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18절, 19절, 23절)

-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 위하여...
- 23절: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
- 18절: 우리를 위하여 ()

3. 22절에 "... ()의 말을 용납하라"고 권합니다. 설교 말씀을 잘 받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 설교자의 건강, 설교자의 설교 준비, 설교자의 생각의 온전함을 위해 얼마나 기도합니까?

4. 사도바울도 기도부탁을 합니다. 다음 구절을 읽고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제목의 범위를 넓혀갈 부분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18절, 참고/엡 6:19, 골 4:3-4, 살후 3:1)

5. 설교자는 디모데가 놓인 기도 응답을 나눕니다. 우리가 나눌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25절, 참고/ 딤후 3:10-14a, 딤펢전 5:23, 사 53:5)

적용하기



■ 적용찬양: 기도 할 수 있는데, 은혜 아니면

베델 탐방·두번째

주님 손에 붙들린 별 “존 헤론”

부활 주일을 맞으며 온 교회가 살아난 것 같은 기쁨을 누리다 문득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은 누굴까요? 직접 찾아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래전 땅끝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찾아가 보고 싶어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음에 배낭을 메고 선교사님을 만나러 온라인 속 양화진으로 떠나봅니다. 타닥~ 타닥~ 양.화.진... 존.헤.론.선.교.사....

부르심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소망이 없다면 나는 이곳에 하루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테네시 의대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여 20대의 젊은 나이에 대학교수로 초빙받을 정도의 실력을 두루 갖췄던 분이지만,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눈앞에 두고도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땅끝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름도 모르던 땅끝 나라, '조선'을 향해 떠났던 그의 이름은 존 헤론 (John W. Heron, 1856-1890)이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삼복더위에 백 리 이상 떨어진 제물포 외국인 묘지까지 시신을 옮길 수 없어 개인 집 뒤뜰에 가매장하려고 했지만, 조선의 관습에 부딪혔습니다.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가족들은 조선 정부의 도움으로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 그분을 모시게 되었고 한국의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꼭 방문하고 싶은 '양화진 선교사 묘역'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For the first time)

가장 먼저 조선 땅에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고자 했던 존 헤론 선교사는 자신의 빛나는 이력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름도 모르던 나라에 도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장 먼저 묻힌 분이 되었습니다. 1884년 미국 북장로교의 첫 번째 조선 선교사로 임명된 그는 알렌,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광혜원에서 의료사역을 하면서, 왕족과 양반계급을 위한 광혜원을 일반 백성들도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중원으로 바꾸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문서 사역에도 힘을 쏟아 수많은 초기 한국교회 전도 문서를 출판하는 데 앞장섰으며, 낮에는 의사로 밤에는 성서 번역자로 쉼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존 헤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젊음을 아낌없이 드렸지만, 사역의 현장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거친 힘겨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생활환경은 불결했고 각종 전염병의 창궐로 백성들은 수없이 죽어 나갔으며 끊임없이 몰려드는 환자들을 돌보기에는 의료진의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1888년, 헤론의 아버지와 장인이 소천하였고 둘째 딸 출산 이후 부인의 건강은 악화하였으며, 헤론 자신 역시 과도한 업무와 재정적 압박으로 심신이 쇠약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이들을 유괴하여 잡아먹고 그 심장과 눈



으로는 약을 만든다는 괴소문에 병원이 습격을 받아 몇 달 동안 사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주변 선교사들 역시 질병과 전염병으로 본국으로 귀국했고 급성폐렴으로 사망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존 헤론의 소망은 결국, 그를 한국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휴가 중에도 병원을 오가며 환자들을 돌보다 이질에 걸린 존 헤론 선교사는 남아있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1890년 7월 26일, 34세의 젊은 선교사님은 조선을 위해 5년간 그의 생애를 남김없이 불태우고 주님의 품에 고요히 안기셨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베델뉴스팀



*참고 자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www.yanghwajin.net)



<세례/입교 간증>

확정되고 확정된 나의 영혼

“한날한시에 우리 가족 다섯 모두 세례를 받게 되어 더없이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군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삶 속에 계신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만 남습니다. 무엇보다 한날한시에 우리 가족 다섯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어 더없이 감사합니다. 이번 세례를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더욱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중수 성도

오래전부터 한 가지 큰 소망은 남편이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주일 아침 교회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흔을 훌쩍 넘겨버린 지금에서야 비로소 머나먼 타국 태평양 건너 낯선 베델에 정착을 시키셨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훌륭한 셀목자와 사랑스러운 셀식구들을 만났고 열정이 넘치는 양육자도 만났습니다. 저희 부부와 아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확실하기에 마치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처럼 교회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바라던 한 가지 소망이자 오래된 제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박정원 성도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 주실까?”, “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냥 고쳐 주시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의심했던 내가 많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니 기쁨이 생겼고 나의 죄인 됨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동생들을 위해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주연(12학년)

하나님을 믿고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하니 교회에 가면 반겨주는 웃음 띤 얼굴들이 이해가 가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흐느끼거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찬송은 감개무량한

저희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민수(11학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의문들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나 자신을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수(7학년)

온라인 등록 가족을 소개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불안정한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는 작년 3월, 아케디아에서 알바인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가 어디일까 기도하던 중 베델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진중하시고 카리스마 있으신 김한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유년부, 어와나 등 모든 프로그램에 감탄하여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된 듯 목사님의 강의를 주의 깊게 듣고 쓰고 또 읽으며,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셀목자님의 사랑과 섬김에 기쁨이 될 때가 많았고, 온라인으로 2주에 한 번씩 만나 설교 말씀으로 일상을 나누며 교제하고 기도했던 셀모임은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현재를 버릴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에,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베델의 은혜로운 햇살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김현중, 성현실 성도



2015년부터 의무 교육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 학교에서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먼저 아시고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특히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조차 무너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적 세계관과 성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결혼의 의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순결의 정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배우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진: 2019년 순결 서약식

〈부모 세미나: 성경적 성교육 학부모 세미나〉

학부모 세미나(온라인)를 마치신 분에 한하여 다음에 열리는 자녀 성교육 세미나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제1강: 세계관 전쟁의 열쇠, 성경적 세계관

일시: 4월 27일(화) 오후 7시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아이들의 세계관은 부모님의 가르침, 학교 교육, 교회,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으로 형성됩니다. 세계관을 통해 생각이 형성되고 그 생각을 통해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녀 또한 가정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 제2강: 미국의 성교육 실태

일시: 4월 28일(수) 오후 7시

현재 공립학교 성교육은 너무 선정적이고 외설적이라 TV 뉴스에조차 나올 수 없는 내용을 학교 교재를 통해 수업 시간에 배웁니다. 공립학교에서 자녀들이 어떠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아셔야 분별력을 지닐 수 있도록 이끄실 수 있습니다.

■ 제3강: 미디어와의 전쟁 / 다음 세대의 위기

(포르노)/ 미디어 중독

일시: 5월 4일(화) 오후 7시

자녀의 문화와 세대를 이해해야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자녀들을 이해하고, 미디어를 통한 성적 자극과 미디어 중독으로 인해 몸과 영혼이 병들어가는 자녀들을 위해 어떤 대책과 바운더리를 만드셔야 하는지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제4강: 자녀를 위한 나이별 성경적 성교육과

바운더리 세우기

일시: 5월 5일(수) 오후 7시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 아름다운 것임을 가르치는 일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하며 또한 나이에 맞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을 알아가며, 그 접근 방법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녀 세미나: 순결 서약식〉

순결 서약식의 날짜와 시간은 차후의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Lesson 1: God Created Male and Female in His Image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과 구별되게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배웁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창조하신 목적을 배웁니다.



사진: 2019년 순결 서약식

■ Lesson 2: We Are Wonderfully Made

뱃속에서 잉태된 그 순간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을 배우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한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목적을 주신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Lesson 3: Becoming Godly Men and Women

자녀들이 Godly man and Godly woman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래의 남편과 아내로 어떻게 훈련되어야 하는지 배우며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Lesson 4: Boundaries in Dating & Purity

남자와 여자는 다르므로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데이트는 언제 해야 하며 데이트의 바운더리는 무엇인지 성경적 데이트에 관해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의 몸과 마음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크리스천으로서 동성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 고등학생은 이와 더불어 포르노의 위험성, STD(성병)에 대하여 배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특히 성적인 부분)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등의 토의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진아 전도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베델위십/셀: 박경철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심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심채플(청년): 서찬석 목사
 예심채플(청년):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오케스트라: 박정영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희미, 이해경
 오르간: 이정은, 이해경, 박정연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유년부: 김재은 간사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장석영,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2021 베델 차세대 리더 장학금에 관하여

2020년은 세계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해로 기억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끼익" 소리를 내며 갑자기 멈추어 버렸고, 사람들 간의 상호교류는 물론 주일 예배조차도 금지되었습니다. COVID 팬데믹으로 인해 정서적, 영적 상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많은 가정이 경제적, 재정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작년 2020년 베델 장학사업은 '장학 특별헌금'으로써 베델 성도들의 자녀와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을 비롯해 베델교회 가정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까지도 함께 수여 해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도 베델의 모든 성도님의 특별헌금으로 2019년에 비해 3배가 넘는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 위원회는 총 5분의 베델 교인(장로, 안수집사)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신청자의 학교 성적, 에세이 리뷰, 추천서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의 리더십 경험 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장학생 모집공고와 신청 마감일에 대한 정보는 베델뉴스와 교회 카카오톡 채널 및 웹사이트, BYM 집회 등을 통해 5월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학생을 격려하고자 하며, 2020년도와 같은 성공적인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의 비전과 열정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인 자녀들의 앞날을 재정적인 지원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김교식 집사 (949)812-1423, scholarship@bkc.org

예배 봉사자

강단꽃(4,5월) | 4/18: 노성애, 정광목 4/25: 강문구 5/2: 노성애 5/9: 홍성아, 황장은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길진영)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베델교회 현장 예배 안내** 베델교회의 모든 주일 예배(1-4부)는 제한된 인원 안에서 현장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checkin, bkc.org).

◆ **양육반 중간 점검** 일대일로 복음과 삶을 나누며 양육, 훈련하는 양육리더들의 중간 점검이 있습니다.

일시: (1차) 4월 21일(수) 오전 10시, (2차) 4월 23일(금) 저녁 7시

*현재 양육반을 진행하시는 양육리더는 둘 중 하루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베델 수요프로젝트** "베델이 간다"와 "베델 큐" 6회가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4월 21일(수) 오전 10시

◆ **코스타리카 (온라인) 선교 팀원 모집** 10주 동안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선교에 팀원을 모집합니다.

일정/문의: 4월 18일(주일)-6월 26일(토)

참가 신청 방법/문의: 홈페이지 '선교팀신청 바로가기', 이선갑 장로 (949)514-5999

◆ **M 미팅 "선교사를 만나다"(니카라과 편)** 니카라과 박우석, 이현숙 선교사님을 Zoom으로 만나 함께 소통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참가 방법: 5월 2일(주일) 오후 2시-3시, Zoom을 통한 온라인

참가 신청 방법/문의: 홈페이지 신청, 주성필 목사 (949)333-9213

◆ **온라인 안경 선교 훈련 모집**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온라인 영상강의와 화상모임(Zoom)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4월 28일(수)- 5월 19일(수) 오후 7시 30분

대상/등록 방법: 베델성도 누구나, 홈페이지 신청

문의: 김창남 집사 (949)939-8239

◆ **교사 컨퍼런스** 교육부에서 교사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팬데믹 상황 이후 교사들이 다시 한번 교사로서의 사명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5월 16일(주일) 오후 2시(한어)와 4시(영어), 5월 23일(주일) 오후 2시(한어)와 4시(영어)
강사: Sean Choi 목사(복가주 세계선교침례교회 차세대 사역자)

참가 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

◆ **성경적 성교육 학부모 세미나** 교회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혼탁하고 무질서한 이 세대 가운데 빛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을 지켜나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세미나(온라인)를 마치신 분에 한하여 추후에 열리는 자녀 성교육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 방법/등록 기간: 홈페이지 신청, 4월 8일(목)-4월 18일(주일)

문의: 안지호 집사 jtitid2006@gmail.com

◆ **2021 VBS Skit Team 모집** 교회학교에서 VBS를 준비하기 위해 Skit Team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베델 교회학교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상/참가 신청 방법: 교회학교 4-8학년, 홈페이지 신청

등록 기간: 4월 11일-4월 18일, 4월 25일(오디션)

문의: 이진아 전도사 Jinahyi@bkc.org

◆ **중등부 아침 QT 모임 (BYM Jr. High Monday Weekly Morning Devotional)** 매주 월요일마다 BYM 중등부가 아침 7시에 Zoom을 통해 아침 QT를 다음 주 월요일(4/19)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중등부 Sports & Discipleship** BYM 중등부에서 'Sports & Discipleship I'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움츠러 들었던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신안 안에서 회복하고자 합니다. 즐겁고 은혜로운 자리에 많은 중등부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4월 23일(금)부터 매주 저녁 6시, 비전채플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일본어 예배시간 변경 안내** 기존 오후 1시 30분에 드리던 예배를 1시로 변경합니다. 현장(임마누엘 채플)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문의: 손용주 목사 (702)449-2627

◆ **남가주 일본인 교회 연합 찬양예배** 팬데믹기간을 지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인 지역 교회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중보하며 새로운 부흥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장소: 4월 24일(토) 오후 4시, 비전채플

문의: 손용주 목사 (702)449-2627

◆ **미디어팀 봉사자 모집** 주일 온라인과 현장 예배의 음향과 조명, 카메라로 섬겨주실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원하신 모든 분들은 미디어팀에서 훈련과 교육을 해 드립니다.

문의: 박주남 전도사 (949)543-8336

◆ **강단 꽃 봉헌** 주일 예배 강대상 꽃을 각 가정의 감사 혹은 추모로 봉헌하실 성도님의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원하시는 날짜와 성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행정실 (949)854-4010

◆ **축하해주세요**

류정빈/정인정 집사 가정에 딸 류지아(Isla)가 4월 12일(월)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주세요**

- 故 이춘자 권사님(박덕연 집사의 모친, 박기순 권사의 시모)께서

4월 11일(주일)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변광성 장로님(변동미 권사의 남편)께서 4월 13일(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욱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Last Prayer Request

(Hebrews 13:18–19, 22–25)

1. From the lack of social interaction caused by COVID-19, we are now coming out to the social world where we can interact with others face to face. Share greetings of encouragement with the family and friends that we most wanted to meet.
2. The preacher of Hebrews was also eager to meet those believers face to face. What is the favor he is asking of those he wanted to meet? (V 18, 19, & 23)
 - Verse 19: ...I may be () to you soon.
 - Verse 23: Know that our brother Timothy has been released. If he arrives soon, I will come with him to () you.
 - Verse 18 () for us.
3. In verse 22, "... I urge you to bear with my words of ()." He is asking them to receive the sermons by grace. Before you receive the Word, how much do you pray for the health of the preacher, the preparation of the sermon, and the integrity of the preacher's thoughts?
4. The Apostle Paul also asks for prayer.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share how our prayer requests can be expanded for one another (V 18, Ref/Eph 6:19, Col 4:3-4, 2 Thessalonians 3:1).
5. The preacher shares the answer to the prayer of Timothy's being released. If you like to share the answer to your prayers, what would it be? (V 25, Ref/ 2 Tim 3:10-14a, 1 Tim 5:23, Isaiah 53:5)

Apply to Life

